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3093호 (2020.07.29) 게시기간 : 2021.07.29 발급번호 : EP261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1566-256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사가 있을 때에는 한국기업은행에 분쟁조정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민말이 ☎332, KAI 금융은행 : ☎080-800-0199, IBK기업은행은 금융-평등콜 받지 않습니다.
유리결정 위반사상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lbketics@ibk.co.kr)



IBK MAGAZINE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2021. SUMMER | VOL.22



CONTENTS

2021 SUMMER | VOL. 22

<p>04 FOCUS ISSUE 1 NFT 시장, 그 원리와 전망을 살피다</p> <p>10 FOCUS ISSUE 2 미술품 공동 구매 아트 재테크를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p> <p>16 GLOBAL REPORT 1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생존 경쟁 개막</p> <p>20 GLOBAL REPORT 2 세계 통화시장의 대변화 화폐혁명의 변곡점에 서다</p> <p>24 TAX GUIDE 부동산 증여 절세전략 토지와 건물 증여,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p> <p>26 INVESTMENT 2021년 3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p>	<p>32 WM SPECIAL 출중한 직원들이 쌓은 고객과의 탄탄한 신뢰 창원WM센터</p> <p>36 THE LAW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 분양권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p> <p>40 TRAVEL AGAIN 소담하게 피어난 역사와 지금이 만나다 몰타공화국의 몰타 VS 한국의 경주</p> <p>48 CLASSIC CLASS 엔니오 모리꼬네 그가 남긴 영원의 음악</p> <p>50 TOAST TO THE FLAVOR 맥주의 대항마 트렌드를 견인하는 하드셀처</p>
---	---

발행일 2021년 6월 1일
 발행처 IBK기업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82
 기획·디자인·제작 이팝 02-514-7567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문화 정보를 담은
 <IBK MAGAZINE>의 별본입니다.

<WIN CLASS>의 외부 필자 원고는 IBK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NFT 시장은 대중적인 성공 이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에게 생소한 기술 개념으로 운영되는 NFT. 그 기술적 기반과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글. 조재우
한성대 스마트융합컨설팅학과 교수

NFT

NFT 시장, 그 원리와 전망을 살피다

눈에 띄게 성장하는 NFT 시장

블록체인 시장의 2020년 키워드가 DeFi(분권화 금융)였다면 2021년 상반기 키워드는 누가 봐도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이다. NFT는 2018년 크립토키티라는 블록체인 게임으로 첫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그 이후 NBA 카드 같은 수집품과 디지털 아트를 거쳐 의미 있는 순간을 기록하거나 DeFi에 활용되는 등 다양한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그에 따라 NFT 시장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NFT 전문 분석 사이트인 Nonfungible.com에 따르면 최근 NFT 일별 최대 거래액은 7,800만 달러, 거래 수는 3만 3,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수치 측면에서의 상승뿐 아니라 시장의 주목을 받는 사례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트위터 CEO인 잭 도시의 첫 트윗에 대한 NFT가 290만 달러에 판매되었고, 유명 아티스트인 벅크시의 작품을 불태우며 발행한 NFT는 38만 달러에 거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발언도 NFT로 발행되어 판매된 것이다. 그 가격은 1ETH, 약 300만 원이다.

하루가 다르게 NFT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NFT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NFT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범주에 머물러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체 불가능’이라는 생소한 개념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NFT의 기초적인 기술 원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NFT의 한계와 가능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향후 발전 방향을 조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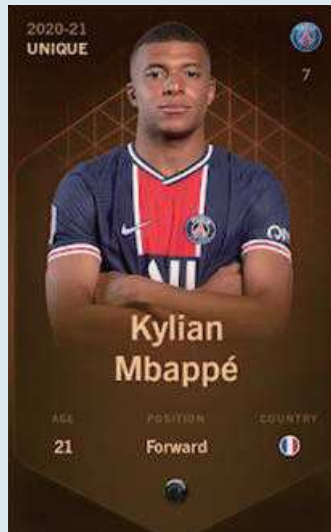
대체 불가능성에 주목하는 NFT

먼저 NFT라는 약어 속 Non-Fungible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자. Fungible은 ‘대체 가능성’으로 번역되는데, 대체 가능성을 가진 자산의 대표적인 예로 금을 들 수 있다. 순도가 동일하다면 내가 가진 금 100g과 내 친구가 가진 금 100g은 같은 가치를 갖는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특별히 가치가 있는 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은 순도와 무게만 동일하다면 서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것을 대체 가능성이라 한다. 또한 대체 가능한 자산은 쪼개질 수 있고 합쳐질 수도 있다. 금 100g은 금 10g 열 개로 대체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대체 가능한 자산은 하나의 표준화된 가치를 가지며 이 때문에 대체 가능한 자산은 가치의 교환이나 저장 수단으로 이용되곤 한다.

반면 대체 불가능한 자산은 각각 고유한 개성을 가지므로 다른 것들과 명확히 구분된다. 희귀한 보석을 예로 들어 보자. 화학구조와 무게가 동일한 다이아몬드일지라도 모양과 커팅, 역사적 상징성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갖는다. 아주 희귀한 다이아몬드는 ‘여배우의 눈’이나 ‘아프리카의 별’과 같은 이름이 붙기도 한다. 특별한 사연이 담긴 경우도 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보석, 몰락한 왕가를 거쳐 온 보석 등 각각 너무나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대

체 불가능한 자산들은 서로 교환되거나 합쳐질 수 없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지금까지의 블록체인 토큰은 모두 대체 가능성이 기반이었다. 내가 보유한 1 비트코인은 남이 보유한 1 비트코인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0.1 비트코인을 10개 모으면 1 비트코인의 가치를 갖게 된다. 그러나 NFT는 한 토큰이 다른 토큰과 명확하게 구분되고,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가지므로 토큰은 서로 합쳐질 수 없다. (공동소유 개념으로 나눌 수는 있다.)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NFT는 희귀 보석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음바페 카드 (출처: Sorare)

디지털 상징물로서의 NFT

NFT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NFT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며,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하는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NFT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지닌다.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ERC-721이라는 NFT 표준을 보면 NFT에는 스마트계약, 토큰 ID, 소유자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NFT 세 가지 기본 요소	내용	(예시) Sorare 축구선수 카드수집 NFT - 음바페 카드
스마트계약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것으로, 하나의 NFT 그룹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 이해할 수 있다. 보통은 계약 이름과 토큰 티커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	스마트계약 : 0x629a673a8242c2ac4b7b8c5d8735f97709 계약 이름 : Sorare 티커 : SOR
토큰 ID	하나의 NFT 스마트계약(또는 토큰 그룹)에서 만들어진 토큰의 고유번호이다. 쉽게 말하자면 A라는 NFT에 '1번 토큰', '2번 토큰', '3번 토큰'처럼 각 토큰마다 번호를 붙이는 것이다.	음바페 카드 중 하나의 토큰 ID: 35097448..96403753 (같은 선수의 카드가 여러 장일 경우에는 각기 다른 토큰 ID를 갖는다. 이 번호는 무조건 1에서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으며, 발행자가 임의로 지정 가능하다.)
소유자 정보	토큰에 소유권이 기록된 주소로, 토큰을 전송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블록체인에서 사용 가능하다. 만약 토큰이 거래되었다면 소유자 정보는 새로운 소유자의 주소로 업데이트된다.	음바페 카드의 소유권 주소 : 0x39746...f97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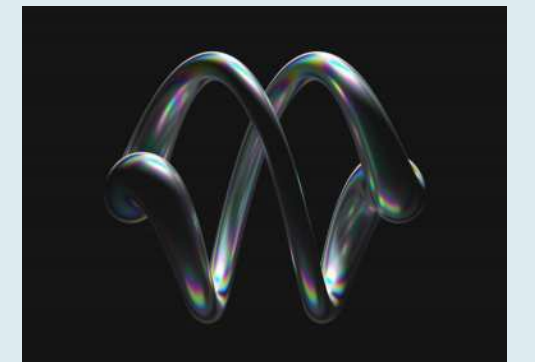
또한 추가적으로 Metadata라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Metadata에는 세 가지 기본 요소 외에 토큰에 필요한 정보를 적어 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토큰에 대한 설명이나, 토큰과 관련된 파일 주소 등이다.

NFT가 기술적으로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기술을 살펴보지 않을 경우 종종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NFT가 디지털 원본이라거나, NFT를 소유하면 디지털 원본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생각이다. 실제 NFT는 디지털 원본이나 소유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다. 단지 스마트계약, 숫자로 된 토큰 ID, 소유자 정보만 있을 뿐이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최근 444 ETH (약 80만 달러)에 판매된 Pak이라는 작가의 작품 'Finite.'에 대한 NFT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토큰 ID와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지만 디지털 원본이나 작품에 대한 설명은 블록체인이 아닌 IPFS라는 시스템에 올라와 있다. 이 파일은 누구나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즉,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NFT는 디지털 원본이라기보다 디지털로 된 상징물에 가깝다.



Finite. (출처: bit.ly/3ufbots)

'Finite.'의 NFT	상세 설명
Smart Contract(FND NFT) : 0x3b3ee1931dc30c1957379fac9aba94d1c48a5405	이 NFT는 FND NFT라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에서 발행되었다.
Token ID : 6544 Metadata : QmTnSs9m5aP7egUhTbfHvFnRWhg9EJZSHnNDDJtxVrJL9h/metadata.json	이 작품은 FND NFT 중 6544번이라는 일련번호, 즉 토큰 ID(Token ID)를 가지고 있다.
https://ipfs.io/ipfs/QmTnSs9m5aP7egUhTbfHvFnRWhg9EJZSHnNDDJtxVrJL9h/metadata.json	이 토큰이 발행될 때 Metadata가 추가로 기록되었으며, Metadata에 적힌 링크를 IPFS라는 분산 저장소에서 찾을 수 있다.
{ "name": "Finite.", "description": "f", "image": "ipfs://ipfs/QmWMVcCNVPCWR7CeWW4h8x8FptsQnRcrK2swxZQRRGqvWg/nft.mp4" }	IPFS에서는 작품에 대한 정보가 텍스트로 나온다. (name(작품명): Finite., description(묘사):f) 여기에서 한 가지, IPFS는 블록체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해당 내용 중 마지막에 보면 image 링크를 찾을 수 있다.
https://ipfs.io/ipfs/QmWMVcCNVPCWR7CeWW4h8x8FptsQnRcrK2swxZQRRGqvWg/nft.mp4	이를 다시 IPFS에 넣으면 작품 원본 파일이 나온다. 이 파일은 31MB 용량의 PNG 그림 파일인데, NFT 토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라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출처: foundation.app)



물리적 세계의 것으로 비유하자면 숫자가 쓰여 있는 동그란 플라스틱 칩과도 같다. 이런 칩들을 어느 가게에서는 미술품 대신이라고 하며 거래하고, 또 어느 가게에서는 수집 카드 대신이라고 하면서 거래하는 셈이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NFT 자체로는 아무런 효용도 만들어 낼 수 없으며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NFT가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NFT의 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희귀 보석을 다시 예로 들어보자. 희귀한 보석이 같은 질량과 화학식을 가진 다른 보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 이유는 그 보석에 얽혀 있는 스토리와 상징성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기 때문이다.

NFT도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어떤 토큰이(예를 들어 FND NFT 6544번) 갖는 의미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면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NFT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망

NFT의 대상 시장도 기존 블록체인 토큰과 차이가 있다. 기존의 대체 가능성을 가진 토큰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NFT 시장은 그보다 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희귀 보석이나 미술품 시장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금붙이는 다수의 대중이 보유하고 있지만 희귀한 보석이나 미술품은 상류층 수집가를 중심으로 수요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은 적절한 가치평가가 어려우며, 가격 변동성이 크고, 즉각적인 현금화도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다.

NFT가 성장한 배경도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사실 NFT는 2018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러나 그때에는 NFT 시장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다. 크립토키티라는 NFT가 2018년 초에 큰 인기를 얻었지만 그 당시 최고 거래 가격은 약 17만 2,000달러(한화 약 2억 원)였다. 지금 최고 거래액인 7,800만 달러의 1/450

수준이다. 이는 암호자산 시장 규모의 차이에 서 온다. 2017년 말 암호화폐 전체 시장 규모는 5,000억 달러 이하였으나 2021년 초의 시장 규모는 2조 달러 이상이다. 이더리움 가격도 2017년에는 300달러 언저리였지만 지금은 2,500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렇게 암호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그 투자자들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들의 구매력도 급격히 높아졌다. 즉, 이제는 수십억 원을 특별한 상징성만 가진 토큰에 흔쾌히 지불할 수 있는 자산가들이 많아진 것이다. 암호자산 시장이 계속 성장할수록 NFT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지금은 NFT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시장이 성숙해지면서 점차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시장이 부상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NFT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 NFT 시장의 확장과 축소는 암호자산 시장의 흐름과 궤를 같이할 것이다. 현재 암호자산 시장은 완전한 상승장이기에 NFT 시장 또한 함께 커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 2018년의 하락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NFT 광풍은 일시적으로 사그라들 수 있다. 특히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NFT는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암호자산은 점차 제도권과 조화를 이루며 규모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NFT 시장도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한편 NFT 시장의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NFT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암호자산으로 부를 쌓은 부유층이란 점을 생각해 보자. 이

들의 문화는 기존 상류층의 문화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나 잭 도시와 연관된 NFT가 큰 가치를 갖는 것이다.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떤 특별한 영역을 개척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새로운 영역이 디지털에 기반한 분권화와 개인의 자유를 지향하는 신흥 부자들의 취향에 부합하리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인트는 '명품'이다. NFT의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은 브랜드 가치를 가진 디지털 명품 시장이다. 물론 아직 명품급 브랜드 가치를 가진 NFT 프로젝트가 나올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명품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NFT는 그 역사가 충분히 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에는 디지털 명품 반열에 오를 프로젝트가 등장할 것이다. 어쩌면 미래에 명품이 될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아직 NFT는, 넓게 보면 블록체인의 초기 단계이다. 비트코인은 이제 겨우 12년이 지났고, 이더리움은 그 절반인 6년 정도 되었으며, NFT는 그 절반인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 시장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한편으로 그만큼 큰 실패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시장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 성장을 함께 즐겨 보는 것도 큰 배움이 될 것이다.

최근 미술품 공동 구매가 급부상하면서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술품 공동 구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본다.

글.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

미술품 공동 구매 아트 재테크를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된 미술품

수십 년간 미술 시장은 갤러리와 옥션으로 운영되어 왔다. 미술품을 거래하는 딜러들은 대부분 갤러리, 옥션에 속해 있거나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거래방식은 동일했다. 작품과 사람을 일대일로 매칭한다. 당연히 미술품은 고가이다 보니 주로 부자들만 상대하게 된다. 나는 월급쟁이라 김환기, 이우환과 같은 유명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결국 유명 작가의 작품은 판화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원화는 남들이 잘 모르는 신진 작가나 중견 작가의 작품을 주로 구매했다. 수년이 지난 지금 팔 수 있는 작품은 아쉽게도 유명 작가의 판화뿐이다. 이우환 화백 판화의 경우 구매 당시 가격보다 5배가 넘게 올랐지만, 더 큰 돈을 지출해서 구입한 신진 작가나 중견 작가의 원화는 단 한 점도 팔 수가 없었다. 나름 유명 미술관에서 일해서 좋은 작품을 추천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 작품들이 투자가치가 있으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미술품 공동 구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여기에서 시작한다. 어렸을 때부터 미술품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희소성이나 세제 혜택 등의 측면에서 다른 대체 투자상품보다 투자가치가 높다고 생각했다. 특히 정치, 사회, 경제가 안정되면 결국엔 문화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생각에 미술품은 유망한 투자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고가의 유명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혼자 살 수 없다면 여러 사람이 모여 소액으로 다 같이 투

자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미술품 공동 구매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될까?

우선, 미술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회사가 공동 구매할 작품을 선정한다. 주로 국내외 옥션에서 낙찰률 70% 이상인 작품을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가격을 분석하여 상승률을 예측한다. 분석한 자료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여 공유하고 공동 구매 진행 후 원작은 회사가 자체 갤러리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미술품을 공동 구매하여 소유한 이력은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작품마다 설정한 투자 목표 기간 내에 작품 가격이 상승하면 재매각하여 수익을 나눈다. 혹시라도 작품이 재매각되기 전에 중도 매각을 원하면 회사에 의뢰하여 매각할 수도 있다. 이때 회사는 미술품 재매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세금의 신고와 납부까지 대행하고 공동 구매를 종료한다.

데이비드 호크니, 제프 쿤스, 바스키아, 이중섭, 김환기, 이우환처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작가의 작품을 공동 구매하면,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가 제공되기도 한다. 실물로 제공되는 확인서를 액자로 만들어 걸어두는 이들도 상당하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의 아트 재테크에 대한 열광은 남다르다. 미술품 공동 구매를 통해 문화를 소비하고 향유하며,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기에 밀레니얼 세대들이 아트 재테크에 환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선 세대와 달리 트렌드에 민감하고 보다 적



극적으로 투자에 접근하는 그들이라면 비트코인처럼 투기성이 강하거나 주식처럼 기관 투자자에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미술품을 새로운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미술품 공동 구매의 최초 플랫폼 론칭

미술품을 공동 구매하면 다양한 장점이 있다. 우선, 신진 작가 작품 한 점을 살 수 있는 돈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유명 작가의 작품을 여러 점 구매할 수 있다. 미술품에도 분산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의 주식,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다 보니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투자하면 투자 리스크는 낮추고 수익률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또한 미술품 공동 구매는 단순히 투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 구매에

더해 고급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는 것도 가능하다. 고액 자산가만 누리던 혜택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2018년 10월 국내 최초로 온라인 미술품 공동 구매 플랫폼 ‘아트엔가이드’가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미술품을 투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이미 10년도 전에 등장했던 아트펀드, 저축은행의 미술품 담보대출 등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고, 특하면 천경자, 이우환 화백의 위작 사태가 뉴스에 나왔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서 미술품을 소액으로 분할하여 공동 구매하고, 블록체인에 기록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미술 시장이 오랜 기간 탈세, 비자금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대중에게 인식

되다 보니 새로운 방식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술품 공동 구매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경험한 대중들이 많아지면서 아트엔가이드 이후 다양한 미술품 공동 구매 회사와 미술품 투자 회사들이 등장했고 기존 옥션과 갤러리에서도 유사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공동 구매 플랫폼

새롭게 등장하는 미술품 재테크 방식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공동 구매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도 작품을 구매한 적이 없는 대중이다. 당연히 작품을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작품과 관련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지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공연 공동 구매 회사나 미술품 투자 컨설팅 회사, 옥션, 갤러리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미술품 재

테크가 관심을 받으면서 우후죽순 아트 재테크 회사들이 등장했지만, 미술품을 투자의 시각으로 분석하려면 실제로 미술품 유통 시장을 경험하는 동시에 금융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한다. 작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으면서, 최근 거래가 이루어진 작품의 시세를 파악하고, 작품 소싱과 재매각에 필요한 미술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미술 관련 자격증이 있거나 갤러리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해서 미술품 투자와 관련한 전문성이 충족될 수는 없다. 전문 인력의 유무는 결국 플랫폼의 전문성과 직결되며 이는 투자수익에 영향을 미친다. 플랫폼의 전문성은 투자한 작품의 재매각 결과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공동 구매의 경우 평균 수익률도 중요하겠지만, 공동 구매한 작품 중 실제로 공동 구매 참여자에게 수익을 배분한 재매각 작품의 비율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특히 재매각 작품 수와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금액이 낮은 작품 위주로 재매각을 해서 매각 총 금액은 적는데 작품 수가 많다면, 남은 고가의 작품에 대한 재매각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아무리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도 재매각이 늦어지거나 그 비율이 너무 높다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또한 재매각과 관련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가의 작품에 재구매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지, 실제로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제3자가 아닌 회사가 직접 구매하는 형태로 재구매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매각 권리 행사로 인해 회사의 재무 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중도에 소유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단순히 소수의 작품이나, 소수의 지분만 높은 수익률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공동 구매 시 제공하는 작품 가격 정보 수준으로도 플랫폼의 전문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우환 화백 작품의 경우 캔버스에 유채로 그린 작품과 종이에 수채로 그린 작품, 종이에 목탄 드로잉한 작품에 따라 낙찰률, 가격 상승률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제작 연도에 따라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석 방법도 다르다. 같은 Winds 시리즈라도 From Winds, East Winds, With Winds에서

컬렉터의 선호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이는 가격으로 직결된다.

붓질의 색감, 밀도, 모양 등에 따라서도 작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만약 아트 재테크 플랫폼에서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단순히 이우환 화백 작품 전체의 낙찰률과 최고가 작품만을 제시하고 있다면 이들의 전문성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트 재테크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좋은 작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플랫폼을 선정하고 그곳에서 분석한 작품 정보와 국내외 옥션 낙찰 결과, 전시 정보 등을 비교 분석해서 보다 투자가치가 높은 작품을 선별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 구매하는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내가 구매하는 작가가 옥션 등을 통한 재매각이 가능한지 계속해서 체크해야 한다. 틈틈이 자신이 투자하고 싶은 작가의 전시를 보러 다니는 것도 시장에서 작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단순히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아트 재테크. 앞으로는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작품을 공동 구매하고, 국채, 주식, 부동산과 미술품이 결합된 새로운 투자 상품을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GLOBAL REPORT 1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생존 경쟁 개막

전기차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그로 인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전기차 주도권 경쟁도 커질 전망이다.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집중해야 한다.

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전기차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전기차 시장이 심상치 않다. 아직 내연기관차 시장이 줄어드는 경향은 없으나 전기차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차 시장이 빠르게 잠식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등 각종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중첩 기간이 최소한 30~40년 정도는 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자동차 산업계의 변동이 연착륙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다고 판단되

었으나 최근 전기차의 단점이 급격히 사라지면서 이 기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기존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지면서 부품사,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여러 면에서 경착륙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당장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무장한 완성도 높은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내연기관차 생산 인력의 30~40%가 줄어

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전기차는 미풍이 아닌 주도 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글로벌 제작사 모두가 적극적인 개발과 생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자동차 판매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전기차는 예상과 달리 320여만 대가 판매되는 호황을 이루었고, 올해 예상 판매로는 500만 대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연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를

9,000만 대 내외로 보면 아직 전기차 판매는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지금의 기하급수적 판매 증가로 보면 오는 2025년 정도면 연간 1,000만 대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차 보급, 지구 환경 개선 등 국제적 환경 규제가 강조되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합류는 당연한 현상이 되었다. 이제 전기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통한 주도권 경쟁

전기차 발전과 직결되는 요소는 단연 전기차 배터리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동시에 전기차 가격의 약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는 배터리의 가격 하락이 필수다. 이는 전기차 생산 국가 모두가 안고 있는 숙제다. 이에 따라 최근 전기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주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전기차의 주도권을 쥐고 선두에 있던 테슬라는 이미 배터리 자체 생산을 위한 내재화를 선언하였고 이어서 폭스바겐 그룹이 각형 배터리 사용과 내재화를 선언하였다. 최근에는 미국 포드사도 내재화 선언을 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의 배터리 내재화 선언이 봇물을 이룬다.

기존 글로벌 배터리사의 움직임도 급격히 변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기차 기반을 중심으로 자율주행과 공유모델 등 다양

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센서와 카메라 등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은 물론이고 최근 부족 현상을 크게 느끼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와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알고리즘 회사도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요성이 크게 늘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 등 내로라하는 모든 글로벌 회사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배터리 양산성을 갖추기 위한 글로벌 흐름

이러한 세태의 중심에는 전기차 배터리가 핵심 요소로 자리한다.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 등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배터리의 양산성을 누가 빠르게 갖추는가가 관건이다. 최근의 흐름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의 배터리 내재화 흐름이다. 몇 개 자동차 제작사가 내재화 선언을 하였으나 과연 4~5년 이내에 내재화는 가능할 것인가. 제작사 입장에서는 기존 수직·하청 구조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윤과 생산을 능동적으로 구현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리 쉽게 구현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특히 안전을 보장하면서 완성도 높은 배터리를 양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영역인 만큼 양면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내재화는 어려운 지점이다. 기존 배터리 회사도 더욱 높은 하이테크 기술을 구사하면서 에너지 밀도와 안전성을 보유한 배터리로의 개발로 지

향할 것이고 대량 생산체계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제성 높은 모델로 탈바꿈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전고체 배터리의 완성이다.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현존하는 최고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무게 및 부피 대비 집적도도 좋아서 전기차에 가장 알맞은 배터리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점은 가격이 높고 열에 약하여 충격이나 압력을 크게 받으면 화재 등에 약하다는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의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하여 향후 6~7년 이후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의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고 열에 강하여 화재 등에 자유로운 미래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온 전도도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도요타자동차 등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는 하나 수면위로 본격적으로 올라온 기업은 없는 상황이다. 빨라도 오는 2025~2030년 정도를 양산 모델 출시로 예상한다. 물론 핵심 요소는 경제적인 특성과 대량 양산체제일 것이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주도권 확보이다. 기존의 배터리 전쟁은 한·중·일 싸움인 만큼 누가 주도권을 쥐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시장에서의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 시장에서의 국내 두 개의 그룹 간의 전쟁은 중국이나 일본에 어부지리를 주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를 통한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의

선점은 국내의 그룹 간의 연계와 공동연구 등 시너지 효과를 통하여 글로벌 시장의 미래 주도권을 쥐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끝으로 과연 배터리 시장이 한·중·일 싸움으로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간의 경제 전쟁 가속화와 자국 우선주의를 선언하였다. 당연히 미국은 자체적인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하였고 유럽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의 한·중·일에 배터리를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의 지역 내 내재화의 흐름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도 전략물자로 바뀌

면서 내재화 선언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에게 배터리는 물론 차량용 반도체 주도권 확보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한 만큼 주도권에 대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모든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적인 특성이 요구되고 첨단 기술력의 집합체가 되는 만큼 우리의 움직임에도 융합적인 자세와 준비가 요구된다. 정부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의 노력과 차별화된 원천 기술 확보 등 해결 과제가 많다. 앞으로의 5~10년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기간이라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CBDC

세계 통화시장의 대변화 화폐혁명의 변곡점에 서다

세계 금융시장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분권화'와 '다양화'라는 변화의 길에 들어섰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을 살펴본다.

글. 홍익희 전 세종대 교수

미래를 주도할 세 가지 통화시장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시대가 성큼 가시권으로 들어왔다.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상용화할 것 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거래가 빨라지고, 저렴해지며, 투명해진다. 해외 송금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이용하면 송금수수료가 기존의 8~25%에서 5%로 저렴해지는 장점과 더불어 송금 시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약점도 있다. 투명해지는 거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디지털화폐보다 더 빨리 치고 나오는 게 있다. 바로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코인이다. JPM체이스은행이 만든 JPM코인은 기존 미국 정부 주도의 '국제은행 간 통신망(SWIFT)' 시스템을 대체해 은행 간 송금시스템을 장악할 기세다. 환전이 필요 없는 스테이블코인의 송금수수료는 2%에 불과하며 송금 수취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돈이 어떤 통로를 타고 움직일지는 자명해진다. 게다가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도 달러 등 법정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통화로 사용하기로 했다. 제도금융권과 암호화폐 간의 칸막이가 벗겨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사용되는 곳은 암호화폐 시장이다.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매개 통화가 스테이블코인이다. 또 제로금리 시대에 제법 큰 수익이 발생하는 매력적이고도 혁신적인 디파이(DeFi·탈중앙

화금융) 시장과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 토큰) 시장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다. 돈은 수익이 나는 곳으로 몰리기 마련이다. 법정통화인 중앙은행디지털화폐의 대척점에 암호화폐가 있다면 그 중간 매개체가 스테이블코인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시대가 도래하면, 모든 돈이 양지에 노출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불가피하게 지하경제에서 움직이며 노출을 꺼리는 돈들은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와 비례해서 암호화폐 시장도 일정 부분 커진다는 이야기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가 펼쳐나갈 삼국지가 미래의 통화시장이다.

중국 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주목하다

이미 지난해에 4개 도시와 베이징올림픽촌에서 중앙은행디지털화폐의 1차 파일럿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중국은 올해 시험 지역을 상하이와 홍콩 등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홍콩은 역외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올해 11월에는 미국 주도의 '국제은행 간 통신망(SWIFT)'에 맞서기 위해 만든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연동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이를 공식적으로 세계시장에 선보이며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은행디지털화폐는 기본적으로 추적 가능한 화폐로 알리페이처럼 QR코드를 스캔

해 돈을 지불하는 기능과 송금 기능이 있다. 또 한 스마트폰 두 대를 서로 맞대는 '부딪치기' 기능도 있는데 이는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도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 이런 부딪치기 기능은 아직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는 빈곤 지역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중국 중앙은행디지털화폐가 주목받는 이유는 중국이 세계 최대 무역국이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의 수출입 품목이 위안화 디지털 화폐로 거래될 공산이 크다. 특히 중국이 대량으로 수입하는 석유 등 원자재 시장이 그렇다.

SWIFT에 대항하는 분권화 움직임

2021년 초 국제결제은행(BIS)은 65개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어떤 형태로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작업을 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합종연횡(合從連衡)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전 영란은행 총재 마크 키니는 2019년 8월 "달러 환율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에 다수의 기축통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유럽 주도의 '합성패권통화(Synthetic Hegemonic Currency)'를 제안했다. 각국 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일종의 '디지털 공동통화'를 만들어 달러에 대응하는 기축통화로 쓰자고 주장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2014년과 2015년에 미국 주도의 SWIFT에 대항하는 국제결제망 'SPFS'와 'CIPS'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러 간 무역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비중

이 90%에서 최근에는 40% 대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인도도 가세했다. 2019년 중국과 러시아, 인도가 SWIFT 결제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대항마를 만들기로 했다. 이는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인구 30억 명을 잇는 대안 결제시스템이 만들어짐을 의미한다. 이미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는 무역거래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13년 '브릭스통화안정기금' 발족과 2016년 '브릭스개발은행'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 대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2018년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5개국 이블록체인 기술을 공동연구하기로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권 디지털통화의 움직임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가 비전으로 '아버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1차로 아랍에미리트와 디지털 송금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각국 중앙은행이 추진 중인 디지털화폐는 추적 가능한 중앙집권형 화폐이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자신의 계좌가 추적당한다고 생각하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의 운영체계를 이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디지털화폐를 보낼 때는 추적 가능한 디지털화폐를 보내지만, 상업은행과 개인 또는 기업 간 거래에는 추적 불가능한 익명성이 보장된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이원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앙은행이 초당 30만 건 이상 거래되는 소매 시장까지 관여할 경우 통화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액 거래에서 개인의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다만 이는 무제한의 익명성 보장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익명성' 보장을 의미한다. 곧 일정액 이상의 큰 금액의 거래는 실명 전자지갑을 통해 거래되어야 한다. 또 마약, 도박 등 불법거래 자금으로 의심될 경우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거래를 추적할 수 있다. 곧 정부가 국민들의 거래 익명성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필요 시에는 개인의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6개국 중앙은행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와 연동된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위세

올 초 미국 통화감독청은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전격 허가했다. 이에 앞서 통화감독청은 은행권의 암호화폐 수탁업무를 허용했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주정부의 허가를 얻으면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기존 금융권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 칸막이의 일부를 열어 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은행들의 물밑 작업도 치열하다. 암호화폐 수탁업무와 디지털 자산 유동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도입으로 외화

송금시스템의 급속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은행 간 국제 외화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8~25%라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거치는 단계가 많기 때문이다. '환전수수료+송금수수료+전용망수수료+수신수수료+환전수수료+현금수수료'로 여섯 단계마다 수수료가 부가되다 보니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것을 중앙은행디지털화폐로 송금하면 '환전수수료+송금수수료+환전수수료'의 3단계로 축소되어 수수료는 5% 내외로 줄어든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는 환전할 필요가 없어 수수료가 2% 내외로 대폭 줄어든다. 게다가 즉시 수취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통화를 송금용으로 선호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 시대로

세계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분권화'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까지 가세하면서 통화의 종류가 '다양화' 되고 있다. 곧 분권화와 다양화가 미래 통화시장의 모습이다. 게다가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외국 디지털화폐를 사고파는 시대가 온다. 패권국가들이 기축통화를 공급하던 공급자 중심 통화시대에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통화를 직접 선택하는 소비자 중심 통화시대로 바뀌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화폐혁명의 변곡점에서 있다. 변화의 흐름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변화를 앞장서서 주도해야 한다.

부동산 증여 절세전략 토지와 건물 증여,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사전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그런데 증여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특히 부동산을 증여할 때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글.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재산은 상속될 때 절반까지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자산이 30억 원만 넘으면 세율이 최대 50%가 된다. 가족에게 자신이 모은 재산을 충분히 물려주기 위해서는 상속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건물은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의 부담이 더 크게 늘었다.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전증여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다. 사전증여 시 각자 받은 만큼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전체 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주택이나 상가를 자녀나 배우자에게 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주는 방법, 건물만 주는 방법, 토지만 증여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또한 증여 과정에서 가치평가 방법에 따라 절세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다음을 고려해 보자.

첫째, 증여는 지속적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주는 것이 유리하다.

토지와 건물은 평가의 가치가 다르다. 토지는 계속 상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반면, 건물은 신축 시점이 비싸고 감가상각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는 줄어든다. 이러한 속성에 따라 대지지분이 많은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의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둘째, 토지와 건물은 같이 또는 따로 줄 수 있다.

① 토지와 건물을 같이 증여해 주는 경우 중요한 결정변수는 자녀나 배우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낼 수 있는가이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10~50%까지의 구간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 재산 가치가 3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은 증여세율이 최대 50%로 세금은 높게 책정되지만, 임대료가 나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임대료를 모아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증여세 세율

적용연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0. 1. 1.~현재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 원

② 부동산 중 건물만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은 토지에 비해 낮은 가액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증여세 및 취득세를 적게 내고 증여할 수 있다. 또한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증여받은 사람의 소득이 된다. 이는 향후 상속 시 상속세 재원 마련이나 추가 재산 마련을 위한 자금 준비에 도움이 된다.

③ 부동산 중 토지만을 따로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토지의 가치는 지난 30년간의 국가 통계연보를 보면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 토지를 미리 증여함으로써 상속재산에서 토지가 제외된다. 따라서 감가상각되는 건물만 남게 되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셋째, 단독주택과 건물은 가치평가 방법에 의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10억 원 이상의 건물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공시가액만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단독주택과 건물은 10억 원 미만의 물건에 해당하게 되어 감정을 받으면 공시가액보다 감정가액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공실의 증가 및 임대료의 조정 등 일정 부분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감정평가가 낮게 나오는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를 충분히 활용해 향후 가치가 많이 오를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가족의 전체 재산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1년 3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하반기 자산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자산 가격의 빠른 회복을 경험했던 투자자들에게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중·저위험군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글: IBK투자증권 투자분석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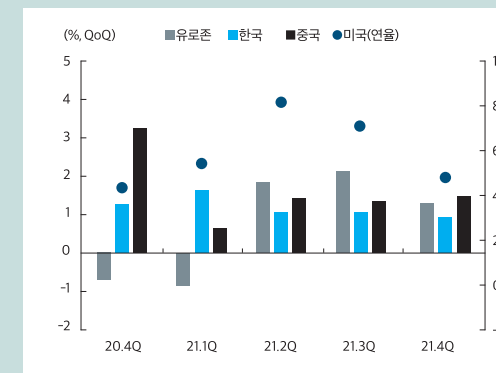
눈높이를 낮춰야 할 때

3분기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더 확대되면서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이 약화될 것이라는 점은 경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안정으로 인해 강한 정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 정책의 정상화에 주목할 수 있다는 점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정책 및 유동성 수혜를 누렸던 주식 등 위험자산에는 부담이다.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 숫자도 약화될 것이다. 작년 2분기 글로벌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컸던 만큼 2분기에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보다 코로나19 타격을 앞서 받은 후 회복한 중국의 경우 이미 상반기에 경제성장률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도 상반기 고점을 찍었던 성장률 등의 지표들이 하반기에는 낮아지면서 성장 모멘텀은 점차 약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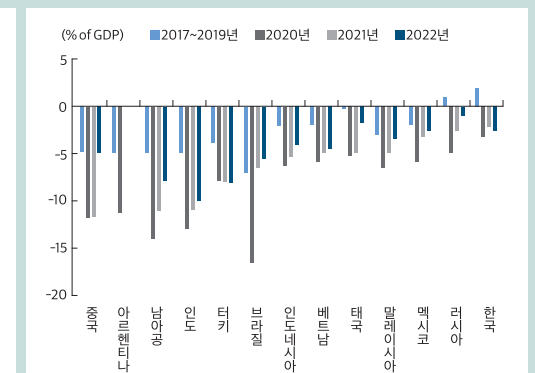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대응하기 급급해 간과하던 리스크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신흥국에 투자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부 신흥국의 재정 상태는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 때 문제의 국가들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다. 디폴트 가능성과 부채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신흥국은 인플레이션 부담이 높아지면서 경제 상황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부족하고 보급이 지연되는 점도 문제이다. 의료 및 사회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만큼 코로나19 지속 기간이 늘어나면서 후유증도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 강세가 나

유럽과 한국, 중국, 미국의 전기대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신흥국 재정적자



자료: IMF, IBK투자증권

타날 경우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투자 매력에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자산들 중에 상대적으로 선진국 자산의 투자 매력에 높다는 판단이다. 강력한 재정 및 통화 정책과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로 2~3분기 강한 경제 회복 모멘텀을 보이는 미국에 이어 하반기에는 유럽의 경기 회복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하반기 경제성장률 숫자는 악화되겠지만 인프라 투자 정책의 본격 진행으로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유럽도 집단 면역 달성 수준까지의 백신 접종 확대, 관광 산업의 개선 등으로 하반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주식시장, 바이든 재정정책 변화에 주의

국내 증시는 상반기 중 경기 펀더멘털 회복을 확인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다만 지난해와 연초에 비하면 상승 강도는 제한적이었다.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미 기대치가 높아져 있어 시장 상승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 준 미국 중심의 통화 및 재정정책 기조가 변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3분기 국내 증시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 미국 정책 기조의 변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는 미국 경제 회복의 낙수효과 기대를 선반영한 상황인 만큼, 미국 정책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변화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고용 상황을 고려할 때, 연준이 일부 자산 과열과 일시적 물가 상승을 근거로 정책 기조를 단기간 내에 변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반면 재정 측면에서는 추가 부양책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가 바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재정정책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의 색깔이 분명히 다르다. 지난 4월 바이든의 첫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완성된 미국 재건 정책(Build Back Better)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1)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구제하기 위한 American Rescue Plan, 2)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American Family Plan, 3)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American Jobs Plan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만큼 위기 구제 정책에 집중됐다. 현금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정부가 직접 위축된 민간 수요를 보강하



는 형태다. 여기에 해당하는 1조 9,000억 달러 부양책은 3월에 통과된 이후 집행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그중 현금지급 조치는 4월 중순에 실질적으로 마무리됐다. 실제로 단기적인 성과들이 소비 지표에서 바로 확인돼 경제 성장과 기업이익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동력이 됐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2개 정책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텐데, 상반기의 위기 구제 정책에 비해 즉각적인 수요 창출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투자의 경우 재정승수¹⁾는 크지만 고용 증대를 통해 민간 수요를 창출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 교육과 육아 지원 등 복지 정책은 경제의 질을 높이지만 재정승수 자체가 크진 않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소득에서 이전소득²⁾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정부의 추가 보조금이 없으면 대부분의 개인에게 증세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고소득층과 법인에 대한 증세까지 현실화되면 고소득층의 주식 차익 실현과 일부 업종의 이익 타격이 불가피하다.

1) 정부의 지출이 한 단위 늘어날 때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재정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다.

2) 이전지급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전지급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연금, 보조금, 보험금 따위를 말한다.

물론 미국 공화당이 대규모 증세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당장 민주당 단독으로 입법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의회 협상 과정에서 세율 인상폭이 하향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실질적인 정책 시행도 빨라야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미국 재정정책의 기초 변화 추세를 막기는 어려운 만큼,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채권시장, 상반기에 비해 리스크 요인이 축소

하반기 채권시장은 상반기에 비해 안정된 흐름을 예상한다. 상반기 나타났던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진정되었으나 금리가 의미 있게 하락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금리 상승 요인이 금리 하락 요인보다 우세한 채, 변동성을 줄이며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상반기 금리 상승의 요인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연준의 조기 긴축(테이퍼링³⁾)에 대한 우려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 미국에서 시작된 백신 접종과 올해 코로나19 종식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를 먼저 상승시켰다. 그 과정에서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로 이어지면서 예상보다 연준이 긴축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게 된 것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의 강도는 점차 강해질 것이다. 미국을 기준으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7월 집단 면역이 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코로나19의 종식이 가까워 오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지출의 증가 추세도 점차 강해질 것이며, 연속해서 발표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경기를 지탱해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금리의 큰 반등이나, 연준의 테이퍼링 언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정책이 경제지표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미국 부양책의 포커스는 가계의 현금 지원이 아닌, 인프라 투자와 같은 숲을 위한 정책으로 옮겨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소비 지표 상승 압력이 약해질 수 있다. 여기에 증세까지 더해진다면 경제지표상 부담감은 늘어날 수

3) '점점 가늘어지다'라는 뜻으로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중에 통화를 직접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 규모를 점차 축소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있다. 더불어 기저효과 역시 2분기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게 된다.

테이퍼링을 위한 조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강도는 약해지겠지만 연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금융시장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과 일부 중앙은행의 긴축 시그널 등이 나올 때마다 채권시장은 텐트럼(tantrum·발작)까지는 아니지만 금리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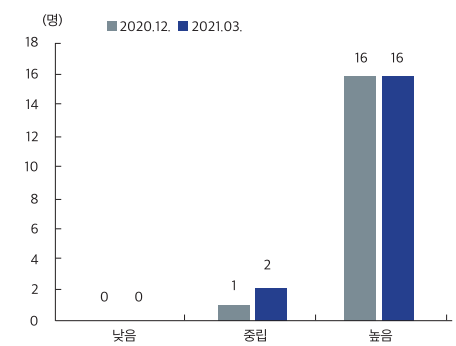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시일 내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상반기 다수의 회의와 연설을 통해 연준 관계자들은 완화 기조와 후행적 대응을 강조해 왔다. 지금까지 관찰된 연준의 기본 태도는 1)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 2) 고용시장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인플레이션 상승을 용인하고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연준은 목표의 단순 달성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유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심지어 연준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고용시장은 경기의 후행지수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거론하기까지는 시일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다른 지표에 비해 고용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괴리가 큰 편이다. 하반기 금리는 상승 압력이 좀 더 강하지만, 상반기에 비해 각종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줄여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연준, 고용시장의 슬랙⁴⁾을 줄이는 것이 목표



자료 : US BLS, IBK투자증권

연준 위원들, 고용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평가 중



자료 : Fed, IBK투자증권

4) 완전 고용과 현재 고용 수준의 차이를 의미한다.



부산경남 지역의 자산관리 허브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창원WM센터. 언제나 고객과의 신뢰를 우선시 하는 직원들이 있어 오늘도 창원WM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핀다. 창원WM센터는 오랜 기간 한길을 걸어왔지만 더 먼 길을 가기 위해 오늘도 차분히 발걸음을 내디딘다.

글. 임산하 사진. 한유리

출중한 직원들이 쌓은 고객과의 탄탄한 신뢰

창원WM센터

(왼쪽부터) 박혜민 대리, 김문진 센터장, 윤경애 부센터장, 최진희 팀장, 최영현 팀장



마음을 담아 고객을 환영하는 WM센터

입구부터 장관이다. 생동감 있는 유화 작품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창원WM센터는 고객들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시를 열었다. 개점 10주년에 개최한 수채화 초대전에 이은 두 번째 전시다. 진심은 자연스럽게 닿는다.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은 듯 방문하는 고객들마다 웃음꽃이 핀다. “10주년을 기념할 수 있었던 것은 창원WM센터를 믿고 걸음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며 밝게 웃는 김문진 센터장. 그가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은 붓의 터치처럼 정확하고 섬세하다.

배어난 역량으로 고객과 만나다

수많은 고객들이 창원WM센터와 오랜 인연을 이어온 것은 직원들이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다. 신뢰의 바탕에는 유능함이 있었다. 창원WM센터는 다섯 명의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배어난 역량을 펼친다. PBA로서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는 박혜민 대리과 자산관리사, AFPK, 외환전문역 등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로서 여신심사업무도 해내는 최영현 팀장, 꼼꼼한 업무 처리로 고객에게 신망받는 최진희 팀장, 창원WM센터의 오픈 멤버로서 고객에게 귀 기울이며 신뢰를 탄탄히 쌓아 온 윤경애 부센터장, 그리고 오랜 PB전문가로서 폭넓은 지식으로 무장한 창원WM센터의 기둥,

김문진 센터장이 있다. 특히 김문진 센터장은 고객의 니즈를 우선 파악하여 고객별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데 힘쓴다. 타행 주거래 고객도 예외는 아니다. 고객이 아닌 사람으로 만나는 그는 창원WM센터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발 벗고 나선다. 그가 이처럼 고객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창원WM센터의 막강한 팀원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신뢰를 부르는 섬세한 컨설팅

창원WM센터의 고객별 상황에 맞는 컨설팅은 평상시 섬세한 고객 관리가 뒷받침되기에 가능하다. 게다가 출중한 직원들이 있어 금융에

국한되지 않고 노무 관리, 인사 관리 등이 포함된 기업 승계 컨설팅도 진행하는데, 이는 고객의 신뢰를 불렀다.

“고객의 자산을 곧 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김문진 센터장.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객의 이익과 자산의 안전성을 최우선에 둔다.

“당장의 성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고객님에게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뼈대는 진심입니다.”

고객을 배려하고, 팀원과 화합하는 창원WM센터. 그들의 마음은 갤러리에 걸린 미술품처럼 오늘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난다.



양도소득세 종과세 대상에 포함된 분양권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다주택자의 부동산 거래와 보유단계 세금을 모두 종과세하도록 작년 입법된 '부동산 3법'이 올해 6월을 기점으로 본격 시행된다. 종과세 대상이 되는 '다주택' 기준은 세대별로 몇 개의 '주택'을 가졌는지가 핵심이다. 분양권은 분명 주택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주택 수를 따질 때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양도할 때 세금도 크게 높아져 분양권 세무가 중요해졌다.

글.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

올해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 시 '주택'으로 간주

'주택 수'는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거나 다주택자로 종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단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분양권'은 그동안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도록 바뀌었다. 이때 분양권은 대부분 아파트 분양권을 말하고 준공 시까지 주택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은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해도 1주택자로 보았지만 올해부터는 분양권이 있는 1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은커녕 오히려 다주택자로 취급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분양권 보유한 1세대1주택자 '2년 보유'와 '장기거주' 등 비과세 요건 강화

1주택자가 올해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 이전 등 목적을 가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작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도 비과세 요건인 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요건과 장기보유공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까지 매우 까다로워졌다.

보유기간의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 상태가 된 날(거주 이전 목적 등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포함한다.)부터 계산해 2년이 넘어야 한다. 과거에는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해도 먼저 처분하고 양도차익이 많이 나는 주택을 최종적으로 팔면서 양도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이 2년만 넘으면 비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최종 1주택 상태가 된 후 2년이 지나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은 별도다.

또한 주택 수, 2년 거주, 2년 보유기간을 모두 충족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해도 양도가액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실거주' 기간이 중요해졌다. 과거에는 보유기간만 따져 장기보유공제를 해 줬지만 올해부터 양도하는 1주택은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실거주(주민등록과 실제거주) 기간까지 10년이 넘어야 80%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1세대1주택으로 아무리 장기간 보유했어도 대부분 전·월세를 놓았다면 장기보유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20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1주택자가 10년간 보유했지만 실거주는 2년밖에 못했다면 세금이 작년까지는 4,500만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무려 1억 500만 원으로 2배 이상 뛰니 장기보유했다고 해도 팔기 전에 양도세 예상 세액을 계산해 봐야 한다.

분양권은 아무리 장기간 보유해도 최소 60% 양도세 종과세

분양권 양도는 어떨까. 분양권을 가진 1주택자가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은 무조건 50%, 비조정지역은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적용되었지만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권은 모두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이라도 6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된다. 유의할 것은 주택 수를 따질 때는 올해부터 취득한 분양권만 대상이 되지만 분양권 양도는 올해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도 모두 개정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분양권 상태로 판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실효세율이 최소 66%이니 분양권 상태의 매도는 피하는 게 좋다.

올해 취득한 분양권 포함 다주택자 양도세 10%씩 추가 과세

분양권 취득과 보유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그동안 2주택에 10%p, 3주택에 20%p를 추가 과세해 왔지만 6월부터는 2주택 20%p, 3주택 30%p 등 10%p씩 더 추가 과세된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을 가진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10억 원이 넘으면 세율은 무려 80%가 넘는다(양도세 45% + 추가 과세 30% + 지방소득세 7.5%).

분양권이 증부세와 취득세에 미치는 영향

양도세에 이어 오는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증부세)도 크게 올랐다. 2주택 이하인 경우 0.5~2.7%이던 것이 0.6~3.0%(법인은 3%)로 약간 올랐으며,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3.2%에서 1.2~6.0%(법인은 6%)로 거의 2배 인상되고, 200%인 세부담상한도 300%가 되었다.

독특한 점은 증부세는 세율 적용을 하는 주택 수를 따질 때 양도세처럼 분양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부세에서는 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를 따질 때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으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올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해도 1주택자라면 2주택 이상 종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물론 60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거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세금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도 4주택 이상자가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무려 12%로 오른 취득세는 어떨까. 원칙적으로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후 새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종과세된다.

법인이 분양권이나 주택 양도하면 법인세 20%

추가 과세

법인이 분양권을 취득, 보유와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 부담은 어떨까. 올해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외에 10% 추가 과세되던 것이

20%로 높아졌다. 20% 추가 과세 대상에는 주택과 별장뿐만 아니라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이 모두 포함된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2%의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지만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보유해도 증부세나 취득세(승계조합원은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지분은 과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1주택자 분양권 취득해도 '일시적2주택' 해당되면 보유-거주기간 모두 인정

분양권의 가장 큰 세무 문제는 양도세다. 올해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다주택자 최대 30% 종과세에다 분양권 상태로 양도해도 최소 66%로 과세되는 등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권을 새로 취득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작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도 분양권 상태로 양도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올해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1세대1주택자라면 절세할 방법은 있다. 만약 거주이전 등 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만 하면 다주택자 종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세제혜택에서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더 큰 절세가 가능해진다.



소담하게 피어난
역사와
지금 만나다

몰타공화국의 몰타

V S

한국의 경주

고요하지만 단단한 문화를 간직한 몰타공화국의 몰타 섬과 한국의 경주는 서로 닮은 여행지로 꼽힌다. 유구한 역사를 넘어 아름다움이 생동하는 두 지역에 흠뻑 빠져 보자.

글. 임산하

평온한 자연과 닮은 몰타 섬

숨 막히는 비경 속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풍성한 몰타공화국은 총 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다. 몰타 섬, 고조 섬, 코미노 섬과 무인도로 이루어진 몰타공화국은 유럽에 속해 있지만 지리적으로는 아프리카와도 가깝다. 그래서인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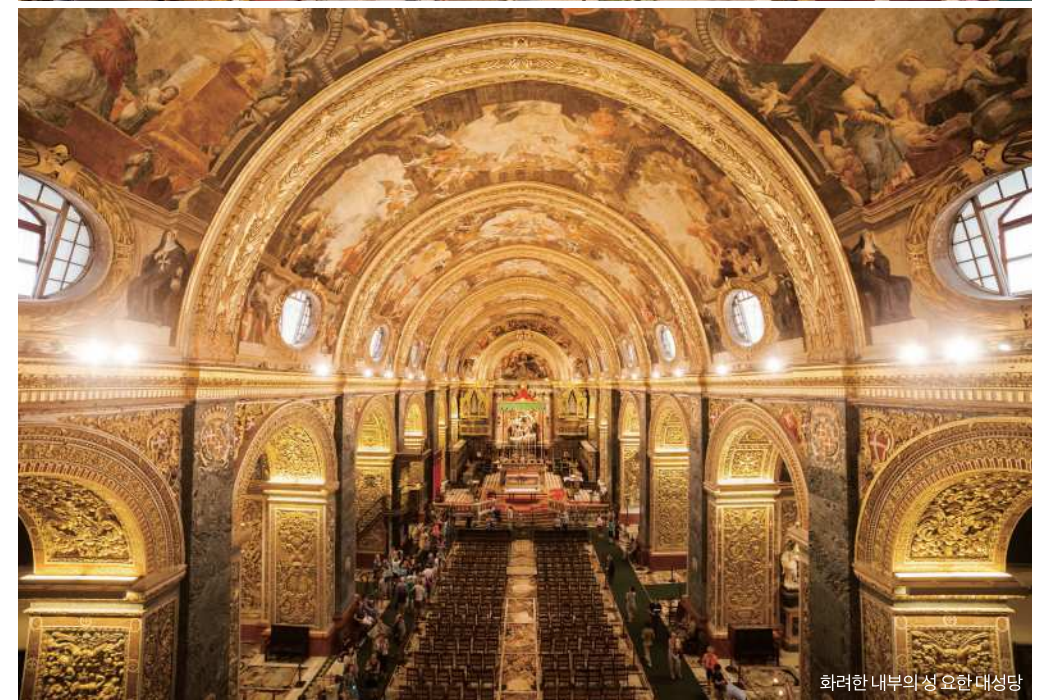
몰타공화국에서 가장 큰 섬인 몰타 섬은 수도 발레타뿐 아니라 옛 수도인 임디나도 있는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이다. 제주도 면적의 6분 1밖에 되지 않지만 많은 것들이 집약돼 있는데, 그중 단연 으뜸은 몰타 섬만이 간직한 풍경이다. 지중해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몰타공화국은 사시사철 푸른빛의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그 때문에 몰타 섬 어느 곳에서나 청량한 바다를 만날 수 있어 숨이 트이고 마음이 환해진다. 해안선이 길어 잔잔히 밀려오는 파도 앞에서는 고집스럽게 들러붙는 일상의 어지러움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런데 자연의 풍경이 전부는 아니다. 바다를 등지고 뒤를 돌아볼 때 보이는 도시의 풍경도 그림이다. 석회암이 주재료인 라임스톤으로 지어진 건물이 자아내는 노란빛의 평온함은 시에스타가 있는 여유와 만나 여행자들에게도 편안함을 준다. 몰타 섬의 자연과 사람은 참 닮아 있다.

빼곡한 역사의 정수 발레타

몰타 섬을 말할 때 역사를 빼 놓을 수는 없다. 몰타공화국은 ‘기사단의 나라’로도 불린다. 1530년부터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 요한 기사단이 머물렀는데, 특히 3만 명의 오스만 제국 군대를 상대로 300명의 성 요한 기사단과 몰타인이 승리를 거둔 것은 그들의 역사에 중요한 페이지로 기록돼 있다. 1565년 오스만 제국의 침략에 대비해 요새로 만든 발레타에는 중세 시대의 건축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성 요한 대성당(St John’s Co-Cathedral), 몰타 기사단장 궁전(Palace of the Grand Masters) 등은 발레타의 주요 유적으로 꼽힌다. 외부의 단조롭고 엄격한 분위기와는 달리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내부를 자랑하는 성 요한 대성당은 고유의 색을 가진 대리석으로 장식된 바닥과 성 요한의 일생이 그려져 있는 천장으로 다채로움이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카라바조가 유일하게 서명을 남긴 작품 <세례 요한의 침수>(1608)가 소장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몰타 기사단장 궁전은 16세기 후반부터 몰타공화국을 지배한 이들의 기지 역할을 하던 곳이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로 이용하는 동시에 박물관으로도 개방해 두고 있다. <월드워Z>, <왕좌의 게임> 등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발레타. 발레타가 간직한 시간을 따라 가다 보면 과거가 현재가 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청량한 바다를 품은 수도 발레타



화려한 내부의 성 요한 대성당

현지의 생생한 맛을 만끽하다

몰타공화국에서는 언제나 풍부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다. 몰타 섬의 남동해안 쪽에 위치한 마샤슬록은 작은 어촌이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몰타공화국의 가장 큰 시장인 선데이 피쉬마켓(Sunday Fish Market)이 열린다. 해산물뿐 아니라 과일과 잡화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시장. 해산물의 신선함도 특별하지만 북적이는 장터의 생생함도 남다른 곳이다. 활기 넘치는 장터 옆으로는 레스토랑이 즐지어 있다. 1년 내내 화창한 날씨를 자랑하는 몰타 섬의 노천 레스토랑에서 생선 요리를 맛보는 것은 또 다른 재미다. 건강하게 조리된 음식은 단출한 접시에 올려 나오는데, 그 모습 그대로 투명한 맛이 입에 가득 찬다. 그런데 이곳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꼭 와인과 즐기라는 말이 있다. 몰타공화국의 와인은 주로 내수용이라 밖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현지의 맛을 만끽하고 눈으로는 바닷가 마을의 흥취에 빠지게 되는 곳. 이때 눈을 돌리면 마샤슬록 바다 위에 떠 있는 전통 배 ‘루즈(Luzz)’ 뱃머리의 눈과 마주칠지 모른다. 매서운 바다에서 배를 지켜 준다는 루즈 아이(eye)는 아프리카와 닮은 문화이자 몰타공화국의 상징이다.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몰타 섬. 시간이 만들어 낸 풍성함과 일상을 감싸는 풍요로움은 몰타 섬만의 자랑이다.



●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몰타 섬.
시간이 만들어 낸
풍성함과 일상을
감싸는 풍요로움은
몰타 섬만의
자랑이다.

TIP 몰타 섬을 시티투어버스로 여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여유롭게 섬 구석구석을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뽕 뚫린 2층에서는 몰타 섬의 따뜻한 날씨를 만끽할 수 있다.



● 곳곳에 있는 장엄한 고분들이 오가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주에는 유적을 따라 이어지는 빼어난 경관이 가득하다.

끝과 시작이 선명히 만나는 경주

신라 천년의 유적을 품은 곳. 곳곳에 있는 장엄한 고분들이 오가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경주에는 유적을 따라 이어지는 빼어난 경관이 가득하다. 특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주 남산은 울창한 숲 사이로 왕릉과 불상, 불탑 등이 고개를 내미는 곳이다. 걸음걸음마다 보이는 유적들로 과거와 만나는 신비로움에 빠지게 되는데, 남산 서편 기슭에 있는 포석정에서는 그들이 되어 주는 느티나무의 청명함 속에 절로 풍류에 젖게 된다. 그리고 남산의 꼭대기에 오르면 경주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옛 도읍지답게 드넓은 평야를 자랑하는 경주 시내와 그 주위를 감싸는 산들이 수목화처럼 자리하는 절경을 만나게 된다. 경주의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또 다른 곳으로는 감포항이 있다. 소박한 단청 같은 풍경의 감포항은 짙은 바다와 맑은 하늘이 만나 눈을 땔 수 없게 한다. 위로 조금 걸어가면 송대말 등대도 만날 수 있다. 송대말(松臺末)은 말 그대로 소나무가 펼쳐진 끝자락이라는 뜻으로, 이곳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유명하다. 물과 바다의 끝이 만나는 곳, 갯바위에 부서진 파도가 끊임없이 포말을 띄워 내는 곳, 일출과 일몰 모두 절경인 송대말은 끝과 끝이 만나 시작을 이룬다.



경주역사유적지구 중 하나인 월성지구



유적과 자연의 균형이 주는 조화

누구나 한 번쯤 수학여행으로 가는 경주는 그 때문에 지루하고 고루한 여행지라는 오명을 입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교육 활동’으로서 경주만큼 완벽한 곳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신라의 문화와 역사를 고스란히 품은 도시로, 발걸음 닿는 데마다 유적이 가득한 박물관과 같은 곳. 유네스코가 경주의 지역마다 ‘역사유적지구’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을 등재시켰을 정도이니 경주가 보존한 시간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경주역사유적지구’ 중에는 황룡사지와 분황사가 있는 황룡사지구가 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이곳은 넘실대는 청보리로 가득하다. 마치 파도처럼 일렁이는 청보리는 신라가 간직했던 휘황한 역사를 다시금 떠오르게 한다. 약 4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초록으로 물들인 청보리. 유적지를 둘러싼 청보리 너머로 국보 제30호 분황사 모전석탑 주변을 지키는 고목의 고즈넉한 푸르름까지, 곳곳이 장관이다.

잠잠히 자리를 지키는 유적과 자연의 고요함은 서로를 모방하듯 닮아 있다.

든든한 진심에 배부른 재래시장

유적이 왕가의 문화를 대표한다면 시장은 서민의 문화를 대표한다. 경주역 앞에 위치한 오래된 재래시장인 성동시장은 한때는 경주의 풍요로움을 대표하던 곳이다. 많은 이들이 오가기 때문에 그들의 시장함을 달래 주기 위해 다양한 반찬을 가득 차려 놓던 성동시장의 배려는 뷔페식 백반집으로 드러난다. 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날마다 음식을 조리하던 수많은 식당들은 손님이 밥 걱정, 반찬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마다 넘칠 만큼 쌓아 둔다. 단돈 7,000원에 마음 놓고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여행자들에게는 즐거움과 든든함까지 채우는 일석이조의 식사다. 특히 성동시장에서 꼭 맛봐야 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곤달비 무침이다. 산나물인 곤달비는 경주의 특산물로 달콤쌉싸름한 맛과 향이 일품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가자미, 도루묵 조림. 경주 감포 바다가 키운 가자미와 도루묵으로 조리했으니 그 싱싱함은 당연하고, 달큰하고 짭조름한 맛에 입안 가득 미소가 퍼진다. 이 외에도 철마다 경주 시민들이 먹던 음식으로 그들의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도처가 역사와 문화로 가득한 경주. 천년의 역사를 넘어 천혜의 문화를 만들어 낸 것은 경주였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TIP 경주를 느긋하게 여행하고 싶다면 10번 버스 이용을 추천한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핵심 유적지를 모두 만날 수 있는 ‘황금노선’이다. 반대방향으로는 운행하는 11번 버스도 있으니 참고해 두자.



엔니오 모리꼬네 그가 남긴 영원의 음악

섬세한 선율로 영화를 채우던 엔니오 모리꼬네(Ennio Morricone). 음악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말하면 정확할까. 어떤 수식으로도 그의 음악을 제대로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의 음악이 영영 저물지 않을 것만은 분명하다.

글. 임산하



마음의 경계를 풀게 하는 Gabriel's Oboe

“나, 엔니오 모리꼬네는 죽었다.”로 시작하는 부고를 남긴 음악계의 큰 별, 엔니오 모리꼬네. 그는 떠났지만,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인물의 감정에 동화되게 하는 그의 음악은 여전히 우리 곁을 선회한다. 악보를 쓴 게 아닌 선율을 그린 것 같은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을 듣노라면 멜로디만으로도 영화의 장면이 그려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화를 모르더라도 그의 음악만으로 나의 감정을 푼 건드린 것만 같은 마법을 느낀다는 것이다. 192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 트럼펫과 작곡을 공부하며 클래식을 전공한 엔니오 모리꼬네는 영화 음악의 길로 들어서던 뉘 명성을 얻게 된다. 영화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로 세계 최고의 영화음악가 반열에 오른 그는 영화 <미션>의 주제곡 ‘Gabriel’s Oboe’를 작곡해 세계인의 가슴을 울린다. 이 곡을 듣고 언뜻 ‘Nella Fantasia(넬라판타시아)’가 떠오른다면, 당신의 귀가 옳다. ‘Nella Fantasia’는 영국의 팝페라 가수 사라브라이트만이 3년 여에 걸쳐 엔니오 모리꼬네를 설득해 ‘Gabriel’s Oboe’에 가사를 붙여 직접 부른 곡이다. 과라니족의 경계를 느슨히 풀어버린 가브리엘 신부의 묵직하고도 따뜻한 오보에 연주. <미션> 속 그의 마음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남아 빛을 돌게 한다.

사랑의 결정(結晶)을 담은 Love Theme

엔니오 모리꼬네가 남긴 가련하고도 섬세한 멜로디는 이후 영화 <시네마 천국>에서 아름답게 폭발한다. 그의 선율이 없는 <시네마 천국>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영화 속 인물을 따라 흐르던 음악은 영화 밖에서도 계속해서 번져 나간다. 특히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흘러나오는 ‘Love Theme’는 막이 내린 뒤에도 귓가에 아른거린다. 쓸쓸하나 아늑하고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 곡은 마치 사랑의 ‘결정(結晶)’을 집약한 것만 같다. 극장 ‘시네마 천국’의 영사 기사 알프레도가 남긴 필름이 영사되는 장면을 가득 채운 그의 음악. 이 곡은 아들 안드레아 모리꼬네가 작곡한 곡을 아버지인 엔니오 모리꼬네가 편곡했다고 알려져 있다. 아내 마리아 트라비아에게 “당신을 향한 작별 인사가 가장 고통스럽다.”라는 말을 남겼을 만큼 ‘사랑’이란 감정 앞에 누구보다 성실했던 그. 2020년 7월 비록 그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음악에 담은 수많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이다.



CINE MUSIC

Ennio Morricone의 또 다른 명곡

Deborah's Theme 영화 <윈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속 아련한 마음을 피워 낸다.
1900's Theme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속 천재 피아니스트의 감정을 따라가게 한다.

맥주의 대항마 트렌드를 견인하는 하드셀처

세계 주류 시장의 트렌드를 책임지는 동시에 밀레니얼 세대에게 주류(主流)로 떠오르는 술이 있다. 탄산수에 알코올을 주입한 하드셀처가 바로 그것이다. 맥주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하드셀처의 매력에 가볍게 취해 보자.

글. 임산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술

미국 주류 시장의 떠오르는 신항 강자는 단연 하드셀처(Hard Seltzer)다. 단어 그대로 보면 ‘독한 탄산수’라 할 수 있는데, 탄산수에 맥아와 사탕수수 등을 발효해 얻은 알코올을 넣고 각종 과일 향미를 첨가하여 제조한 술이다.

하드셀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를 정확히 겨냥한다. 건강한 유희를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도수와 칼로리가 낮은 하드셀처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하드셀처의 알코올 도수는 5% 미만이고 칼로리 함량은 355mL 기준 100Kcal 내외다. 또한 인위적인 당분이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글루텐 프리 제품도 있어서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마시는 게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2016년 즈음부터 하드셀처가 SNS의 해시태그를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꾸준한 관심 속에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하드셀처의 판매량은 약 226% 증가했다. 실제로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하드셀처는 한국 주류 시장의 문도 조금씩 두드러지고 있다. 하드셀처의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가 한국의 소비자에게도 만족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모인다.

술이 아닌 음료를 닮은 하드셀처

하드셀처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 1993년 밀러쿠어스(MillerCoors)에서 ‘지마(ZIMA)’라는 이름의 하드셀처를 만든 적이 있다. 알코올 도수가 낮은 과일향 탄산음료라 볼 수 있는데, ‘가짜 술’이라는 놀림 속에 2008년에 단종되었다. 그 이후에도 ‘스파이크드 셀처(Spiked Seltzer)’라는 이름의 하드셀처가 등장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저조했다. 그런데 건강을 중시하는 주류 트렌드에 힘입어 술보다는 음료에 가까운 이미지의 하드셀처가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자유로운 야외활동에 어울리는 데다 독자적이고 감각적인 패키지가 눈길을 끌었던 이들의 선택을 받게 되었다. 향간에는 하드셀처에 대한 이 같은 반응을 마케팅의 승리라고도 본다. 실제로 하드셀처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화이트클로(White Claw)’는 미국식 ‘밈(meme·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콘텐츠)’에 자주 등장한다. 유명 주류회사들도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춰 하드셀처를 내놓기 시작했다. 버드와이저 제조사 AB인베브(ABInBev)와 보드카 브랜드 스미노프(Smirnoff)도 하드셀처를 출시한 바 있다.

새로움과 건강함을 충족하는 하드셀처. 맥주의 대항마로 성장하고 있는 하드셀처가 내일은 어떤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그 모습이 궁금하다.





VIP고객님들을 위한
IBK만의 품격있는 서비스



WIN CLASS 서비스패키지

✎ 공항 리무진 의전 서비스

고급 리무진으로 공항(자택)까지 전문기사를 통한 의전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이용 가능 공항 :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 이용 가능 지역 : 인천/김포공항은 서울 전 지역 및 수도권 일부 도시(시흥, 김포, 성남, 과천, 안양, 광명, 인천, 부천, 고양, 일산, 구리, 하남), 김해공항은 부산지역, 제주공항은 제주지역 내에서만 제공 가능

✎ 웨딩카 지원 서비스

신혼부부를 위한 고급 웨딩카로 식당에서 공항까지 의전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이용 가능 공항 및 이용 가능 지역은 공항리무진 의전 서비스와 동일

✎ 작명 서비스

고객님의 소중한 자녀, 손주 등 직계비속의 이름, 회사·건물명 작명 제공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의 직계비속(신생아 및 입양), 고객 명의의 회사·건물

| 국내 유명 작명가의 추천 작명 5개(1건당)

✎ 경조사 서비스

상 또는 결혼이 발생한 고객에게 결혼 시 축하 화환, 조사 시 조화 및 장례용품 지원 서비스

| 지원 대상 : 고객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 서비스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오니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서비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에 문의바랍니다.